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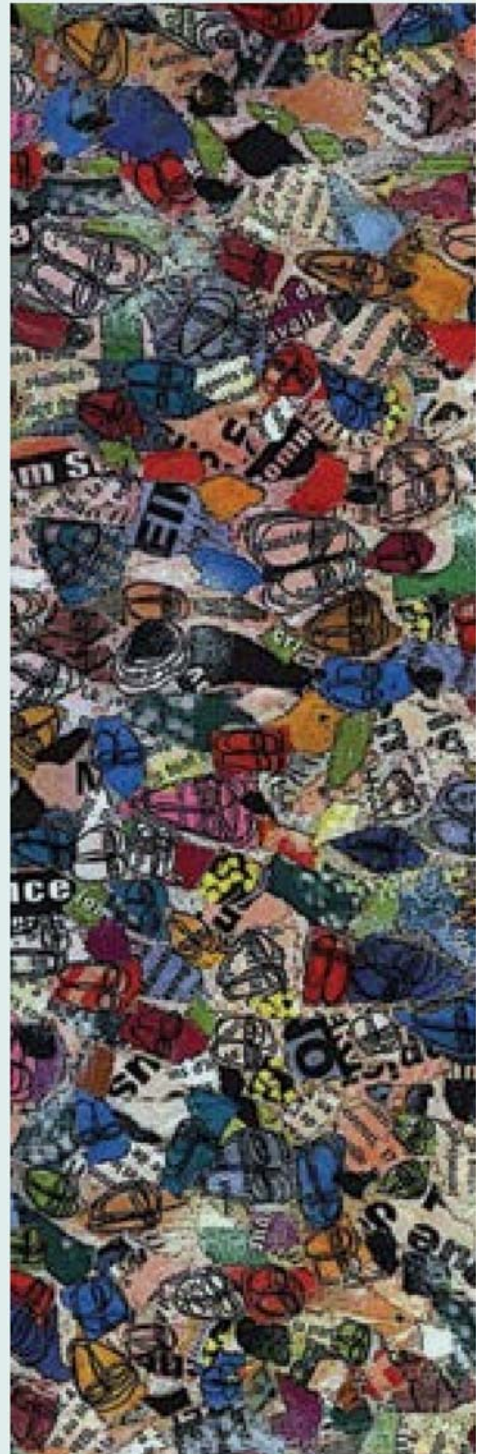
디지털미디어 사회에서 바라본 마틴 루터의 ‘만인제사장주의’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하여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같은 나라이다”(9절)라고 말하고 또 계시록에 “당신은 당신의 피로써 저희를 제사장과 왕들이 되게 하셨나이다”(5:9-10)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다. (중략) 그러므로 주교가 성별할 때에 그것은 모두가 동등한 권능을 가진 모든 회중을 대신하여 그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권능을 행사하도록 맡겨 주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마치 다 같이 왕의 아들이고 동등한 상속자들인 열 형제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자기들 전체를 대신하여 유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들 중의 하나가 다스리는 직무를 맡고 있기는 하나 그들은 다 왕들이며,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일등 공신 가운데 하나는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8~1468)의 활판인쇄술이었다. 루터 사상의 핵심인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와 ‘만인제사장주의(Priesthood of All Believers)’가 교회 혁신에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을 통해 성경의 대량 보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필사하던 시절에는 사제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 설사 성경을 구할 수 있다 해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기란 쉽지 않았다. 중세 시대의 성경은 동물의 피지(皮紙)를 이용해서 만든 필사본으로 성경 1권을 만드는 데 평균 85마리의 송아지와 4~5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루터는 사제들만의 특권처럼 여겨지던 성경을 만인이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했다. 하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번역된 독일어 성경을 당시 최첨단 미디어였던 활판인쇄술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한 일이었다. 당시 독일어는 민중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고, 활판인쇄술은 이제 막 서양문명의 새로운 기원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미디어였던 활판인쇄술을 구텐베르크는 오직 성경만을 인쇄하




1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 언급된 만인제사장주의 관련 내용이다. 지원용 역 (2008),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30쪽

는 데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에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던 면죄부를 인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구텐베르크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인쇄해서 돈을 버는 수완 좋은 사업가였다. 그러나 루터는 자칫 패역의 도구가 될 뻔한 인쇄술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교회개혁을 위해 선용하였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코앞에 둔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개혁의 필요성과 더불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에 버금가는 혁명적인 디지털미디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그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 중 일부는 루터가 그토록 개혁하고 싶어 했던 중세가톨릭의 사제중심적인 모습을 재현하기라도 하듯 담임목사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며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는 일반 회중과 소통하는 데 실패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패로 이어졌다. 루터의 개혁사상이 인쇄매체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 온 세상이 연결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통해 루터의 '만인제사장주의'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세상을 대표하는 웹의 세계는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탈권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 모든 만민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사회를 선도하는 웹혁명의 서술용어인 웹 2.0의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인 참여(participation), 공유(sharing), 개방(openness)이 21세기 목회와 선교 그리고 교회교육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임은 분명하다.²⁾ 이처럼 웹 3.0 시대를 논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한국교회가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맞게 만인제사장주의를 실현하려면 웹 2.0의 가치는 여전히 필요하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다수의 회중을 이끄는 형태에

서 벗어나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개성과 능력, 소명에 따라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회중 다수가 교회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요구받고 있다는 웹 2.0의 가치를 넘어서, 개인이 가정과 직장 등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며 교육하는 맞춤형 사역이 웹 3.0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마치 인터넷 서점에서 그동안 내가 주문한 책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신간 서적 가운데서 읽을 만한 책을 골라 주는 맞춤 서비스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역시 중세의 가톨릭처럼 성직자들이 주도해 왔다. 소수에게 권위에 집중된 교회가 웹 2.0과 웹 3.0의 가치를 실현시킬 때 교회끼리 경쟁하거나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좋은 콘텐츠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혁신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과 같은 기술결정론자의 주장이지만 혁명적인 미디어의 출현은 사회를 바꾸고 인간을 변화시키며 아울러 교회의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변화의 핵심 요체인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우리는 이미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을 선용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를 확인했다.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을 외치는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긴급한 숙제를 안게 되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 속에서 개혁주의적인 특징을 읽고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 김영래, 『웹2.0문화와 21세기 교회』, 윤영훈 엮음(2010), 『문화시대의 창의적 그리스도인』,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